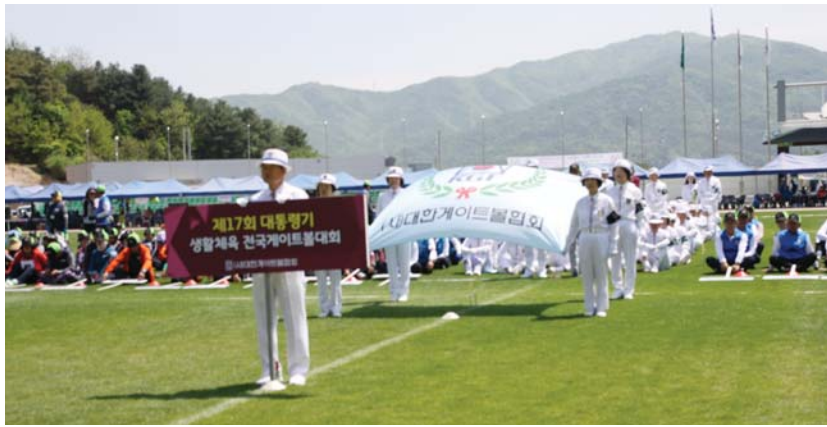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성료'

남자 우승 강원도 홍성, 여자 우승 경기도 수원, 혼성 강원도 횡성
전라남도 6개 지역 대표 40여 명 출전 목포시 여자 공동 3위 차지



제17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게이트볼대회(사)대한게이트볼 협회(회장 맹수일) 주최로 지난 13일부터 강원도 철원종합운동장에서 3일간 열렸다.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서 148개

팀 선수 인원 약 1,600여 명이 참가해 도별 종합 우승과 팀별 남자부와 여자부 그리고 혼성부로 나누어 열린 경쟁 속에 승패가 가려졌다. 도별 영광의 종합 우승에는 강원도가 준우승은 경상남도, 종합 3위에는 경기도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 팀별 우승은 20개 코트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남자부 우승은 강원도 홍천 팀이 여자부 우승은 경기도 수원시가 혼성부 우승은 강원도 횡성이 각각 영광의 깃발을 흔들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6개 팀이 출전해 여자부에서 목포시가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홍재 기자

세계수영대회 D-50



이홍재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수영대회 현장에서 북한선수단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홍행 보증수표' 북한 참가하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행 '보증수표'인 북한의 참가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조직위가 애를 태우고 있다. 19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28일이 대회 개막 D-50일로 경기시설과 선수촌 건립, 수송대책, 안전문제 등 분야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시설점검 차 광주를 방문한 국제수영연맹 코널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이 FINA 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대회도 참가할 것으로 확인한다"며 "엔트리 등록 등 참가를 위한 요청을 북한에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김미래, 김국향, 현일명 등 세계 최고 기량의 북한 선수 참가와 예술단, 응

북미 관계 틀어지면서 현재까지 참가 여부 불투명
정부·광주시·FINA, 북한 측에 지속적인 참가 요청

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평화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참가는 대회 주제와 가장 적확하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행 보증수표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참여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수구 남북 단일팀을 비롯한 북한 선수 참가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제수영연맹(FINA) 등과 협의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11일 아나연 국무총리가 서울역에서 열린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에서 일부 종목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2월15일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장관회의에서 이홍재 시장의 친서를 북한 체육상에 전달했다. 국제수영연맹도 북한 참가를

원단 등의 방문으로 대회 흥행과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를 통해 북한 선수단 참가를 비롯해 여자 수구 단일팀 구성, 북한 정상급 예술단 공연, 남북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응원단 운영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제안한 상태다. 엔트리 등록 마감은 6월24일까지로 북한이 이 기간 안에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직위 등은 북한의 참가를 대비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확보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영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의 참가는 대회 성공개최의 화룡점정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대회 참가로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인류평화의 가치가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호남 어르신 생활체육 교류전 게이트볼 '눈길'

'생명의 땅 으뜸 전남'과 '행복도시 경북' 화합의 한마당 축제



경상북도게이트볼협회 이수추 회장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게이트볼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가 지난 15일부터 2일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전남과 경북 교류전으로 영·호남 화합을 다졌다. 전남에서는 경북체육회 초청으로 게이트볼과 탁구, 정구, 그라운드골프 등 종목별 선수 임원과 전남체육회 관계자들이 환영을 받으며 경기에 임했다. 각 경기 종목 단체별 친선 경기를 통해 영·호남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에 관중들의 환

호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게이트볼의 경우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장귀남 회장과 경상북도게이트볼협회 이수추 회장이 선수로 출전해 두 경기 60분의 경기를 거뜰히 치르면서 승패를 떠나 전남과 경북의 친선을 도모해 경기장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이 기립 박수로 연호하기도 했다. 교류전 경기를 마친 전남게이트볼협회 장 회장은 "경북 도민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덕분에 게이트볼이 영·호남의 경기력과 기술향상은 물론 저변확대와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에 참가 선수들도 기뻐하며 내달 전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회를 마쳤다.

신봉우 기자



세계랭킹 1·2위 조코비치·나달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결승 격돌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와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33·스페인·2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결승에서 격돌한다. 조코비치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단식 준결승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27·아르헨티나·24위)을 2-1(6-3 6-7(2-7) 6-3)로 꺾었다. 나달은 준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차치파스(21·그리스·7위)를 2-0(6-3 6-4)으로 완파했다. 조코비치와 나달의 상대전적에서는 조코비치가 28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해에는 1월 호주 오픈 결승에서 만났는데 조코비치가 3-0(6-3 6-2 6-3)으로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열리는 클레이코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코비치와 나달은 클레이코트에서 23차례 맞대결했는데 나달이 16번

을 이겼다. 둘이 대회 결승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11년과 2014년에는 조코비치가 이겼고, 2009년과 2012년에는 나달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다. 조코비치는 2008년과 2011, 2014,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나달은 2006년부터 3연패를 달성했고 2009, 2010, 2012, 2013, 2018년 등 총 8차례 이 대회 정상에 섰다. 조코비치와 나달은 나란히 4대 메이저대회 바로 다음 등급인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최다인 33회 우승을 기록 중이다. 이번 대결에서 이기는 선수가 최다 우승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함께 열리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 결승에서는 카롤리나 플리스코바(27·체코·7위)와 요해나 콘타(28·영국·42위)가 맞붙는다.

뉴시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곡, 화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